

한겨레 한마당

6 금융가 '절세상품' 찾기

7 달라지는 여성

8 내인생의 책들
이 강숙

9 한국언론사 새 조명 눈길

11 인물탐구
백 낙 청

12 '갯벌'다큐 동시제작



7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서아무개(17)양은 이번 여름방학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제작과 화장으로 보내다 부모로부터 금욕령을 받아야 했다.

서양은 광고모델을 꿈꿔오다 자기 포래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지난 학기에 몇몇 광고기획회사와 연예인프러덕션에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 서양은 아무런 응답이 없던 사진응모 끝에 광고모델 사진은 모델의 메이크업과 사진 연출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터득하고 여름방학 내내 이 작업에 매달린 것이다.

방학엔 얼굴가꾸기

최근 미스코리아 부정선발사건에 등장했던 유명 미용실들을 눈여겨 두었던 서양은 학원비와 모아둔 용돈, 그리고 친구들에게 꾸돈까지 합한 30만여원의 거액을 그 유명 미용실에서 단 한번의 카메라 메이크업에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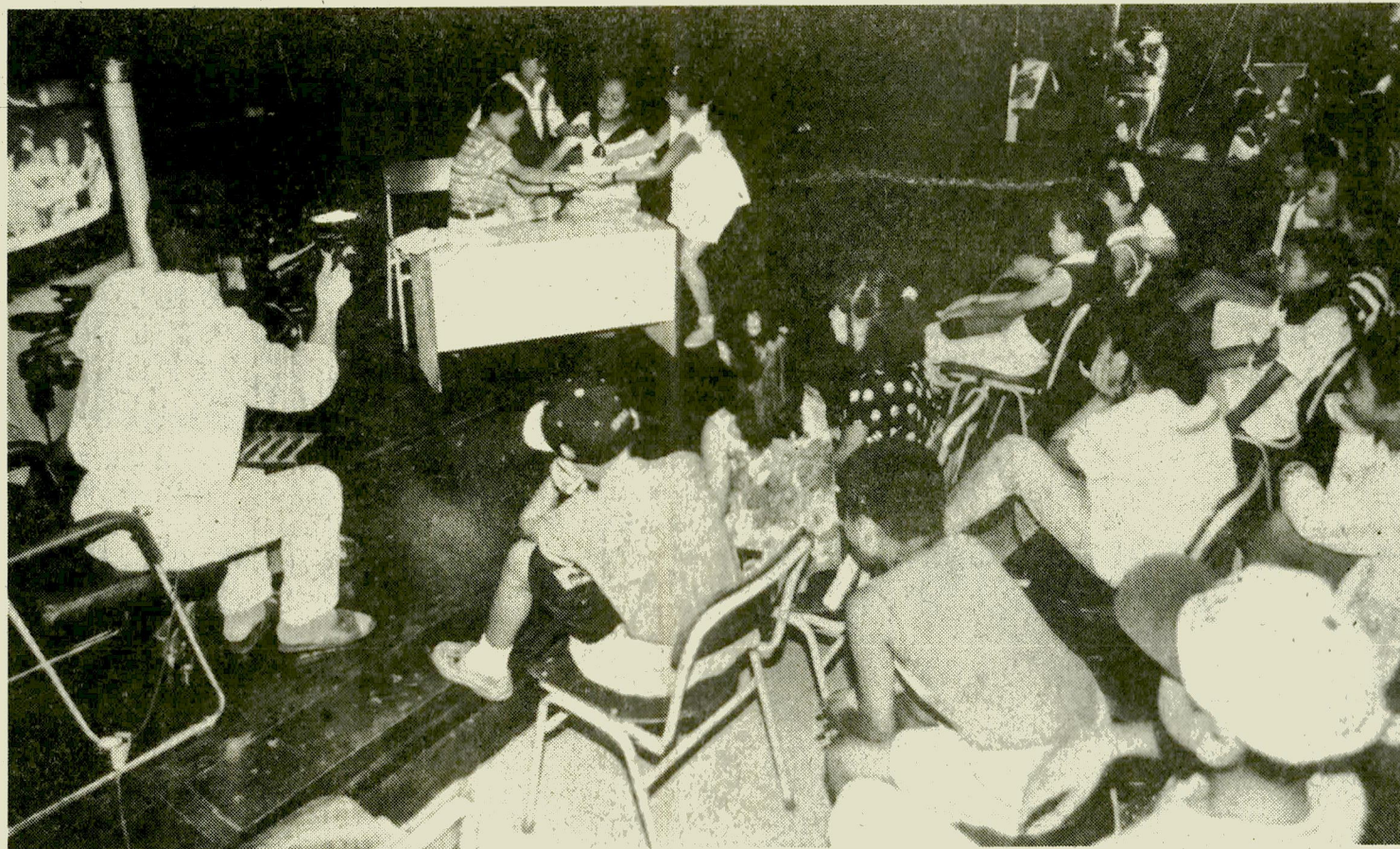
사진반 친구에게 사정해 연예인

서양의 경우는 최근 '연예인 신드롬'이란 열병을 앓을 정도로 연예인을 선망하고 더 나아가 직접 뛰어든 우리 사회 10대 문화의 한 예일 뿐이다.

특히 이런 연예인 신드롬은 10대 후반인 하이틴보다는 국민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의 10대 초반인 이른바 '로틴'(lowteen)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발병'하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호황을 누려온 서울 여의도 방송가의 10여개 연기학원에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10대 수강생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었다.

연기학원에서 명문으로 소문난 0학원의 경우, 성인반·중고반·유치반과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연극영화과반 등 4개반에 1백80명의 수강생을 1년에 세차례씩 모집하고 있으나 보통 1천여명씩 수강을 희망하고 있어 간단한 전형만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 희망생 90% 이상이 중고생이고 특히 중학생이 이중 60%여서 중 고생반 등은 항상 수강인원을 초과



“나도 우상될수 있다” 연기학원 복직 주위 뒤덮은 오락연예문화에 큰영향

구분을 없앤 채 일괄 모집해 수강생의 90% 이상이 중고생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다.

0학원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성인이 아닌 수강생은 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갈수록 연령이 낮아져 중학생이 주류이고 엄마 손을 이끌고 찾아오는 국민학생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재수현상까지

그는 “고교 수강생 다수는 부모

신문방송학과와 연극영화과가 1·2위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신방과가 1위인 것은 기사 등에 대한 매력에서가 아니라 방송이라는 단어가 주는 연예 관련성 때문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0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아무개(17·사고2)군은 “같은 반 친구 중 6~7명이 신방과를, 4명이 연영과를 진학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꼭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굳혀 구체적인 진학 희망학과 순위로는 1·2위”라고 전했다.

물론 방송반이 가장 인기있는 서클로 부각됐다.

학교 연극반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이군은 “1학년 때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연극반에 가입했다”며 “어떤 친구들은 학교 연극반이 유지하며 교외의 학생극단·청소년극단에 가입하려 하거나 기존 극단을 찾아다니며 단원가입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문예·독서는 따분”

또 이군이 재학중인 사고교에서

등 잡지제작에 의례적으로 끼는 난 등이며 나머지 기사 역시 다이아트·패션 등 관련기사로 채워져 있다.

《학원》 등 과거의 청소년 잡지를 생각하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요즘 중고생 대상잡지는 청소년 잡지가 아니라 전문 연예잡지일 수밖에 없다.

연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관심은 1차적으로 이들을 담보로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비롯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에 편성되어 10대에게 인기있는 연예인들을 전문분야에 상관 없이 잡탕식으로 출연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의 출연진 역시 노래나 연기실력과는 관계 없이 ‘예쁘고 귀엽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성적이고 아동적 용모의 연예인들이 주종이다.

이런 프로들은 현재는 여론에 밀려 폐지된 서울방송의 〈꾸러기 대행진〉으로 촉발됐다.

방송·잡지 부채질

연기 경쟁

서울 여의도 방송가의 한 연기학원 국민학생반에서 진행중인 카메라 오디션 연기실습 모습. 실습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청소년 연예인신드롬의 저연령화 현상이 잘 드러난다. 김선규 기자

방송사 프러덕서들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청률의 열쇠를 10대들이 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서울지역 중고생 6백명을 상대로 한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9시간17분의 학습시간을 갖지만 여가시간은 3분의 1도 안되는 2시간57분에 불과하고 이중 2시간 2분을 텔레비전 시청에 쏟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대한 10대들의 몰입도가 높다는 것이고, 텔레비전과 10대가 서로를 얹어매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한국가정발전연구소 민무숙 박사는 이 때문에 청소년의 90% 이상이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휴대하고 있고 연예인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고 콘서트·공개방송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다.

“귀엽고 감쪽한 연기를 보여주는 진실언니의 팬클럽 ‘또자’ 1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앤디의 많은 한국팬 여러분! ‘아하인’의 문을 두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덕화의 한국 팬클럽 아하인의 4기회원 모집광고)

갈수록 연령 낮아져

중고생 잡지 말미에 항상 실리는 연예인 팬클럽 모집광고는 해당 연예인의 매니저쪽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중고생 팬들이 게재하는 것이다.

웬만한 국민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라면 하나씩은 가입한 이 팬클럽에서는 회원증·배지·발급, 회지 발행 및 미공개 사진·테이프 구입과 뮤직 쇼 등의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다지며 그 포래의 보편적인 문화의 하나로 정착하는 현실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들이 나이가 들어 사회에 나가면서 ‘연예인 신드롬’은 해소되겠지만 ‘말초적·감각적·즉흥적’이란 표현으로 요약되는 연예활동의 속성이 성장기에 뿌리깊게

한마당

- 6 금용가 '절세상품' 찾기
- 7 달라지는 여성
- 8 내인생의 책들
이 강 숙



- 9 한국언론사 새 조명 눈길
- 11 인물탐구
백 낙 청
- 12 '갯벌'다큐 동시제작



17여고 2학년 재학생인 서아무개(17)양은 이번 여름방학을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제작과 화장의 모험으로 보내다 부모로부터 금족령을 받아야 했다.

서양은 광고모델을 꿈꿔오다 자기 포레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지난 학기에 몇몇 광고기획회사와 연예인프러덕션에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 서양은 아무런 응답이 없던 사진으로 끝에 광고모델 사진은 모델의 메이크업과 사진연출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터득하고 여름방학 내내 이 작업에 매달린 것이다.

방학엔 얼굴가꾸기

최근 미스코리아 부정선발사건에 등장했던 유명 미용실들을 눈여겨 두었던 서양은 학원비와 모아둔 용돈,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까지 합한 30만여원의 거액을 그 유명 미용실에서 단 한번의 카메라 메이크업에 '투자'했다.

사진반 친구에게 사정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 서로의 포즈를 교정하며 제작한 제법 그럴듯한 브로마이드 사진을 광고기획사 등에 우송했다.

서양은 결국 여고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품들을 발견한 어머니의 추궁에 사실을 실토해 일체의 외출을 금지당했다. 서양은 요즘 방학 동안 같이 사진제작을 하며 어울렸던 친구들이 연기학원이나 모델학원에 다니며 단역 촬영에 가끔 나간다는 소식에 자신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초조할 따름이다.

서양의 경우는 최근 '연예인 신드롬'이란 열병을 앓을 정도로 연예인을 선망하고 더 나아가 직접 뛰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 10대 문화의 한 예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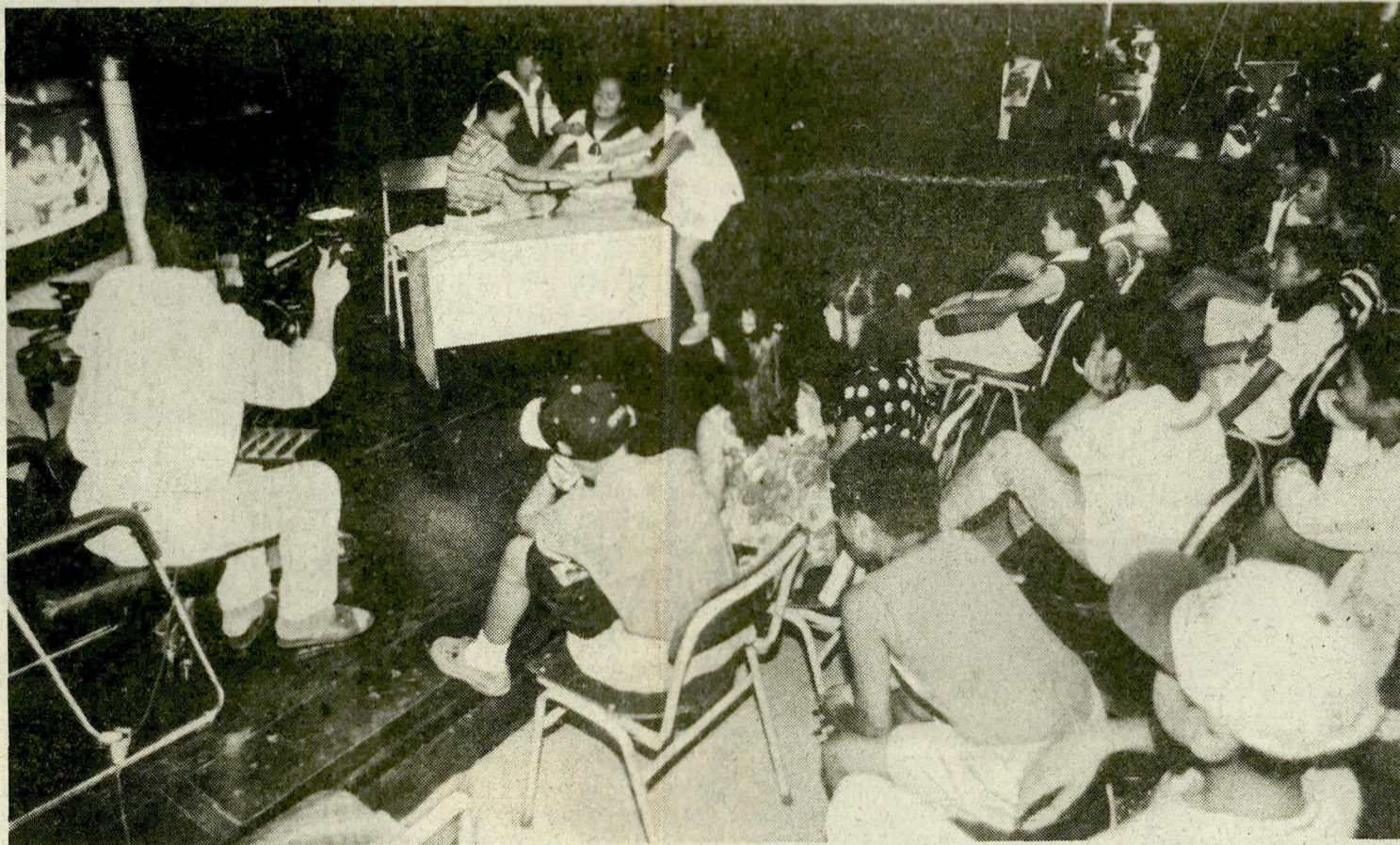
특히 이런 연예인 신드롬은 10대 후반인 하이틴보다는 국민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의 10대 초반인 이른바 '로틴'(lowteen)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발병'하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호황을 누려온 서울 여의도 방송가의 10여개 연기학원에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10대 수강생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었다.

연기학원가에서 명문으로 소문난 0학원의 경우, 성인반·중고반·유치반과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연극영화과반 등 4개반에 1백80명의 수강생을 1년에 세차례씩 모집하고 있으나 보통 1천여명씩 수강을 희망하고 있어 간단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 희망생 90% 이상이 중고생이고 특히 중학생이 이중 60%여서 중·고생만 등은 항상 수강인원을 초과해 1백여명을 받고 있다.

이 학원에 중고생들이 이처럼 몰려드는 것은 이 학원이 연기지도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출연을 주선하는 연예매니지먼트회사를 병설운영해 다른 학원에 비해 텔레비전 출연 등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강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일단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뒤 재도전하는 '연기학원 재수현상'도 있다는 것이다.

인근 2학원은 이처럼 몰려드는 중고생을 의식해 성인반·중고생반



“나도 우상될수 있다” 연기학원 북적 주위 뒤덮은 오락연예문화에 큰영향

구분을 없앤 채 일괄 모집해 수강생의 90% 이상이 중고생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다.

0학원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성인이 아닌 수강생은 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갈수록 연령이 낮아져 중학생이 주류이고 얼마 손을 이끌고 찾아오는 국민학생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재수현상까지

그는 “고교 수강생 다수는 부모의 승낙 없이 다니는 반면 중학생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부모를 설득해 공인된 상태로 학원에 나오고 있다”고 새로운 세대일수록 연예분야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음을 지적했다.

텔런트나 가수가 되겠다는 것이 10대 시절 한때의 꿈으로서가 아니라 확고한 가치관으로 심어진 단적인 예는 중고생들의 구체적인 대학진학 희망학과 순위에서 잘 드러난다.

일선교사들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희망학과 순위는 몇년 전부터

신문방송학과와 연극영화과가 1·2위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신방과가 1위인 것은 기자 등에 대한 매력에서가 아니라 방송이라는 단어가 주는 연예 관련성 때문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0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아무개(17·사고2)군은 “같은 반 친구 중 6~7명이 신방과를, 4명이 연영과를 진학 가능 여부에 상관 없이 꼭 지원하겠다는 마음을 굳혀 구체적 진학 희망학과 순위로는 1·2위”라고 전했다.

같은 학원에 수강중인 성아무개(16·도여고1)양 역시 “같은 반 학생 절반 정도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연영과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생 서클활동 역시 풍토가 바뀌고 있다.

문예반·독서반 등 고전적인 서클활동은 고리타분한 활동으로 변했고, 과거 기이했던 몇몇 아이들의 무대로 생각됐던 연극반·그룹사운드·댄싱그룹 등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중화하고 있다. 예능연예

발다른 재주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방송반이 가장 인기있는 서클로 부각됐다.

학교 연극반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이군은 “1학년 때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연극반에 가입했다”며 “어떤 친구들은 학교 연극반이 유치하다며 교외의 학생극단·청소년극단에 가입하려 하거나 기존 극단을 찾아다니며 단원가입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문예·독서는 파문”

또 이군이 재학중인 사고교에서는 ‘스파클’ ‘와이키’ ‘댄싱뷰’ 등 4~5개의 그룹사운드와 댄싱그룹이 활동중인데 이번 학기 신입회원 모집 때 각 10여명씩 모집에 80여명씩 지원해 평균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고생들의 연예인 신드롬은 그들을 둘러싼 문화가 온통 오락연예문화 일색이라는 데 기인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대표적 중고생 잡지인 8지 7월호의 경우, 총 59건의 기사 중 39건이 연예관련기사이고 나머지 20건 중 10여건은 애독자 엽서추첨

등 잡지제작에 의례적으로 끼는 난 등이며 나머지 기사 역시 다이어트·패션 등 관련기사로 채워져 있다.

〈학원〉 등 과거의 청소년 잡지를 생각하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요즘 중고생 대상잡지는 청소년 잡지가 아니라 전문 연예잡지일 수밖에 없다.

연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관심은 1차적으로 이들을 담보로 시청률 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비롯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7월 홍두표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강성구 〈문화방송〉 사장은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 지양 방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두 방송사 사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은 민방 출범 이후 각 방송사가 내보내고 있는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에서 잘 설명된다.

“전격!” “특종!” “선택!” “출발!” “독점!” “전원집합!” “출동!” “대결!” 등 감도 높은 감탄사성 어휘가 들 어간 각 방송사의 프로들은 한결 같이 주말이나 평일의 황금시간대

에 편성되어 10대에게 인기있는 연예인들을 전문분야에 상관 없이 잡탕식으로 출연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의 출연진 역시 노래나 연기실력과는 관계 없이 ‘예쁘고 귀엽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성적이고 아동적 용모의 연예인들이 주종이다.

이런 프로들은 현재는 여론에 밀려 폐지된 서울방송의 〈꾸러기 대항전〉으로 촉발됐다.

방송·잡지 부채질

‘예쁘고 귀여운’ 10대들의 ‘아이돌 스타’들을 대거 출연시켜 온갖 해프닝을 잡탕식으로 연출한 이 프로는 단번에 시청률 1위였던 〈문화방송〉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

이 프로는 〈초특급 꾸러기 대항전〉으로 확대 편성됐고, 상대 방송사들도 이에 질세라 같은 성격의 프로를 매일 편성하여 맞대응해, 황금시간대에 나이 지긋한 시청자들은 채널권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프로들의 홍수사태에 대해

연기 경쟁

서울 여의도 방송가의 한 연기학원 국민학생반에서 진행중인 카메라 오디션 연기실습 모습. 실습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청소년 연예인신드롬의 저연령화 현상이 잘 드러난다. 김선규 기자

방송사 프러덕서를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청률의 열쇠를 10대들이 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서울지역 중고생 6백명을 상대로 한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9시간17분의 학습시간을 갖지만 여가시간은 3분의 1도 안되는 2시간57분에 불과하고 이중 2시간 2분을 텔레비전 시청에 쏟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대한 10대들의 몰입도가 높다는 것이고, 텔레비전과 10대가 서로를 얹어매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한국가정발전연구소 민무숙 박사는 이 때문에 청소년의 90% 이상이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휴대하고 있고 연예인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고 콘서트·공개방송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다.

“귀엽고 감쪽같은 연기를 보여주는 진실언니의 팬클럽 ‘또자’ 1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앤디의 많은 한국팬 여러분! ‘아화인’의 문을 두드려 보지 않으시렵니까?” (유덕화의 한국 팬클럽 아화인의 4기회원 모집광고)

갈수록 연령 낮아져

중고생 잡지 말미에 항상 실리는 연예인 팬클럽 모집광고는 해당 연예인의 매니저측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중고생 팬들이 게재하는 것이다.

웬만한 국민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라면 하나씩은 가입한 이 팬클럽에서는 회원증·배지 발급, 회지 발행 및 미공개 사진·테이프 구입과 뮤직 쇼 등의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다지며 그 또래의 보편적인 문화의 하나로 정착하는 현실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들이 나이가 들어 사회에 나가면서 ‘연예인 신드롬’은 해소될지라도 ‘말초적·감각적·즉흥적’이란 표현으로 요약되는 연예활동의 속성이 성장기에 뿌리깊게 감염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병균이를 보고 저 아이같이 하고 싶다고 엄마 손을 붙잡고 학원에 오는 5살 안팎의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연기학원 관계자의 말처럼 연예인 신드롬은 이제 점점 더 저연령화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익길 기자

알림=‘금주의 작은역사’는 목요일자 9면으로 옮겨 실립니다.